

대학에서의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적용에 관한 고찰

권정숙¹⁾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New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 Higher education

Jeong-Suk Kwon¹⁾

요 약

최근에 고등교육기관에서 일과 학습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도입된 것이 교수학습지원 시스템과 강의평가제의 의무시행이다. 이와 함께 2000년 초부터 새로운 교수법이라는 이름으로 학습자 중심교육을 위한 교수법이 소개되고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수들이 새로운 교수법을 수업에 적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수월성과 혁신을 강조하고 학습자의 역량강화가 교육성취 결과로 측정되는 요즘 대학은 학습자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학습자 중심 교수역량에 대한 고민들은 많으나 구체적인 논의나 경험적인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외부적인 환경변화 요구와 내부적인 변화속도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수방법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대학에서의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핵심어 :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학습자 중심교육, 교수지원 프로그램, 교수역량, 구성주의

Abstract

Recently, there are two policies implemented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eliminate mismatches between work and learning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It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teaching-learning support system and lecture evaluation system. In addition, since early 2000, the teaching method for learner-centered education has been introduced under the name of new teaching method and is being performed in the lecture. However, many professors have expressed difficulty in applying new teaching methods to class.

Now, emphasizing the excellence and innovation of college education and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earners are measured as educational achievement results. The university emphasizes learner-centered education and has a lot of concerns about learner-centered teaching capacity, but lacks concrete discussions or empirical data.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learner-centered education in the university to minimize the gap between the external environment change demands and the internal change rate of the university education and to search the direction to realize the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s.

Received(August 25, 2018), Review Result(September 10, 2018)

Accepted(October 12, 2018), Published(November 30, 2018)

¹⁾(Professor) 32244 College of Teaching Profession Chungwoon University, 25 Daehak-gil, Hongsung-Eup Chungnam, Korea email: jskwon@chungwoon.ac.kr

Keywords : new teaching-learning methods, learner-centered education, teaching support program, teaching competency, constructionism,

1. 서론

중세 유럽에서 대학이 생긴 이래 대학의 주요한 역할은 지식의 확장에 있었다. 연구를 통하여 지식을 생산해내고 사회로 유통하는 일을 담당함으로써 인간이 가진 지적영역의 지평을 넓히고 확산하는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의 역할은 지식생산과 유통을 독점하는 세력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었다. 지식과 기술의 생산과 유통 속도가 급속하다 보니 대학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혀 사회에 나가면 이미 지나간 지식과 기술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간에게 교육이 처음 제도로 자리 잡을 당시 교육은 소수의 엘리트를 대상으로 공적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기르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대 동서양의 교육형태를 살펴보면 소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인 개별학습으로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육이었다.

정부가 1995년 교육개혁을 천명하면서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교육에서의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학습자 중심교육이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중심교육과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모든 교육기관에서 학습자 중심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 그간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은 이미 교육장면에서 이루어져 왔던 교육적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실효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제까지 대학에서 강조되어 온 지식 유통구조의 속성이 지식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이 두어져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연구 성과에 비해 교육의 비중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에서의 연구(지식의 생산)와 교육(유통)의 불균형은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와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이라는 대학교육의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없게 되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일과 학습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도입된 것이 교수학습지원 시스템과 강의평가제의 의무 시행이다. 이와 함께 2000년 초부터 새로운 교수법이라는 이름으로 학습자 중심교육을 위한 교수법이 소개되고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수들이 새로운 교수법을 수업에 적용하면 강의평가 점수가 낮게 나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수월성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요즘 학습자 중심의 교수역량에 대한 고민들은 많으나 학습자 중심의 교수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실제 교수행동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역량이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도 부족하다[1].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외부적인 환경변화 요구와 내부적인 변화속도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수방법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 탐색을 위해 고등교육에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학습자 중심 교육에 관한 교육학적 논의

2.1 학습자 중심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학습에 있어서 개별 학습자와 학습의 과정을 중요시 하는 학습 방법이다 [2]. 교육과정에 있어서 개별 학습자를 강조해 온 학자들은 중국의 공자나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로부터 찾을 수 있다. 현대 철학자로는 학습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의 사고의 과정을 강조한 베이컨과 지식을 습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개인의 경험들을 강조하여 '경험학습'의 개념을 이끌어낸 존 로크가 있다. 루소는 자연적 학습, 어린이 중심학습, 그리고 경험 중심의 학습을 강조한다. 페스탈로찌는 학습자의 종합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 학습자는 모든 발달의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그것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부모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학습자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최초로 유치원을 세웠던 프뢰벨 역시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을 발전시키면서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자연적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존 듀이는 학습에 있어서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여, 사회적 경험과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학습에 대한 갈망과 동기가 학습자의 가장 주요한 태도라고 보았고, 듀이의 이러한 강조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의 철학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하였다[3].

블룸(1976)은 학습자의 다양한 배경지식, 능력, 경험, 학습에 대한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런 개인차에 근거하여 교수-학습전략을 수립하고 교수활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역량을 '개별화 학습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다[4].

학습자 중심교육에 대한 관점을 교육의 무대로 이끌어 낸 대표적인 학자는 듀이로 듀이는 교육이란 아동의 능력, 흥미, 습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환경에서 아동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습자 중심 교육에 관한 논의는 20세기 중반부터 써머힐을 비롯하여 열린교육, 홀리스틱 교육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5]. 또한 인본주의 심리학은 학습자 개개인을 학습과정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학습자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지하는 이론적 토대와 방법은 구성주의에 근거한 교수-학습방법이었다[6].

학습자 중심 교육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구성주의는 '지식은 개별적인 의미구성의 결과'라는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학습이론이다. 구성주의는 인간과 대상의 만남에서 오는 인간의 주관적 경험 세계를 중심으로 지식이 구성된다고 보았다. 개별 학습자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며, 지식구성의 방식은 객관적이고 절대적 진리의 소유자인 교사로부터 지식을 전수받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가 특정 맥락 속에서 다른 개인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고 본다. 구성주의에서 수업의 목적은 학습자들이 문제해결이나 창의적 사고를 통하여 지식을 학습하는데 있다. 또한 지식이란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사회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개별적 인지적 작용의 결과이며, 다른 사람과의 활동 속에서 협상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성과 재구성을 반복해 나간다고 본다[7].

구성주의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에서 출발하여 피아제가 설명하는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끊임 없이 자신의 환경과 교류하며, 이 과정에서 지식이 창조되고 재창조된다는 인지발달이론과 비고츠키가 설명하는 학습자들의 사회적 교류가 인식 발달에 있어서 기초적인 역할을 하며, 아동의 문화적 발달에 있어서 모든 기능의 발달은 사회적 수준에서 먼저 일어나고 다음으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사회발달이론에서 시작되어, 학습자는 자신의 인지적 구조가 요구하는 대로 스스로 정보를 선택하고 변형하며 가설을 설정하고 행동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브루너의 이론들이 혼합되어 어떻게 하면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논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비고츠키는 소그룹에서 함께 작업할 때 과업 성취도가 높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협동학습'을 강조한다[3].

'학습자 중심수업'이란 종래의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시되며 정답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획일화된 일제수업과 설명 일변도의 객관주의적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수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식을 구성하도록 생생한 경험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조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성장의 조건으로서 학습자의 능동적 성향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동등하게 고려하면서 학습자가 보다 의미 있는 수업에 참여하여 학습에 재미와 찾아 인식수준과 경험을 확대시킬 수 있는가가 학습자 중심 수업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경험의 성장이 가능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반성적 사고이다. 반성적 사고는 과거나 현재에 일어나는 실천적 행위에 대한 사려 깊고 분석적인 사고로부터 미래의 행위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문제 상황에 부딪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 사고 방법이다[8]. 듀이가 설명하는 경험의 성장개념은 교사들이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이전의 경험과 새로운 경험이 연속되는 학습 환경의 조성과 함께 학습자들의 내면적 충동이나 능동적 성향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반성적 탐구의 습관으로 발전되도록 풍부한 사고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9].

2.2 학습자 중심 교육 교수역량

학습자 중심 교육은 교육의 중심이 교수에서 학습으로, 학습의 주도권이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교수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인 학습목표의 설정과 학습내용의 선정,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 학습동기의 원천, 평가목적과 방법의 적용, 학습자 상호작용의 변화이며, 실제 학습자 중심 교육이 교육의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핵심요소 중 하나는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다[10].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교수자는 학생의 학습동기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낼 수 있도록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긴밀한 관계와 소통 속에서 역할을 하는 참여 촉진자로서 여러 학습자의 개별적인 다양한 학습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을 수행하며 학습과정에서의 참여를 이끌며, 동시에 학습의 주체로서의 학습자의 권한을 존중하는 새로운 교수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다[11].

많은 연구들은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적인 학습방법을 도입한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수업이란 구조화된 내용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서경혜와 유신영(2004)은 좋은 수업의 구성 요소를 전달, 구성, 관계, 결과의 4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전달관점의 좋은 수업이란 수업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느냐에 달려있고, 구성관점의 좋은 수업은 학습자들이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식의 재구성 과정을 조장해야 하는 수업이라고 설명한다. 관계관점에서 좋은 수업이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수업장면에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여 상호간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하며, 결과관점의 좋은 수업이란 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습자가 학습목표 달성에 성공하는 수업을 의미한다[12].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학습자 중심 수업에 관한 연구결과의 특징은 학습자 참여 수업,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 반성적 성찰이 가능한 수업, 구성적 수업 학습자에게 학습목표가 고루 성취되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성공적인 수업을 이끄는 교수역량은 교수(teaching) 목적별로 분류될 수 있다. 교수의 목적은 지식의 전달이며,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가르친다는 행위는 지식을 매개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현상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교수역량은 지식을 다루는 교수자의 행위 뿐 아니라 학습자, 학습과정, 학습내용, 학습결과의 평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역량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교수역량을 강의전달 능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즉 성공적인 교수행위는 학습자들에게 정해진 수업내용을 얼마나 명료하게 잘 전달하느냐, 수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수업내용을 잘 구조화하느냐, 학습자들이 충분히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느냐의 여부로 판단하게 된다 [13][15].

그러나 학습자 중심의 교육의 교수활동은 대개의 경우 여전히 지식 전달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접근을 조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촉진하는데 있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적 접근의 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 중심 교육이란 학습자의 흥미위주이거나 난이도가 낮은 학습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돕기 위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개인차를 고려한 정의적 접근을 시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13].

오은주(2009)는 좋은 수업에 필요한 교수역량을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좋은 수업의 특징과 학생

들이 선호하는 수업방식을 분석하여 좋은 수업을 위해 교수자에게 강조되어야 하는 역량을 고찰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수역량 진단지를 재분석하여 세 가지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학습자 중심의 좋은 수업은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학습자가 모든 수업내용을 스스로 독학하는 형태가 아닌 교수자의 주도적 개입이 요구되는 참여 학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교수핵심역량은 첫째, 수업구조화 역량으로 전체 수업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수업 설계와 가이드라인 제시능력이다. 연구결과로 대부분의 교수자들은 학습자 참여 수업으로 팀프로젝트와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학습자들은 전적으로 학습자가 주도하는 수업활동보다는 교수자의 주도와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세미나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자가 탄탄한 수업 설계를 바탕으로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 역량을 길러야 한다.

둘째, 교수자의 정의적 역량으로 교육에 대한 교수자의 태도와 열정, 가치관과 철학, 창의력과 상상력 등의 역량을 말한다. 학습자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창의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좋은 교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교수자들 스스로 심미적인 탐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자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역량이다. 교수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학습 상태 뿐 아니라 의견을 경청하고 학습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소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학습자 중심수업이라는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학습자들에게 권위적으로 군림하고 자신의 스타일만을 고집하며, 학습자들에게 강요하는 교수는 학습자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된다. 학습자들은 질문은 해주고 이름을 기억해 주며, 대화를 유도해 주는 수업을 선호한다. 즉,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교수역량은 학습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다. 교수자들은 학습자의 학습목표 달성에 필요한 발문과 학습자의 반응 확인을 통해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을 익혀야 할 것이다.

이제껏 대학에서는 해당 분야의 지식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 생산자로서의 교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서 학습자들은 스스로 지식을 생산하는 생산자이므로 학습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교수행동과 관련하여 꾸준한 개선이 요구되며, 이런 맥락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역량이 더욱 중요시 된다. 이렇듯 대학에서 반성적 고찰의 결과로 지식전달 관점 보다는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1].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수업내용, 풍부한

교수자료와 매체, 효율적이고 다양한 교수전략,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지식을 구성해내는 수업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수업들은 공통적으로 학습자의 능동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 지칭될 수 있다. 본래 학습자 중심 수업은 종래의 획일화된 교수자 중심의 설명 일변도의 주입식 수업을 지양하고,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수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경험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학습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나 제공되는 매체와 자료가 학습자의 관심이나 사고와 연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구조화해야 하며, 이러한 연속적 관계 속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사고의 질적 수준이 확대되어 경험적 의미의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험의 성장을 추구하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과 방법의 연속성 하에 다루려는 지식의 내용에 함의된 경험적 과정을 탐색하고, 그러한 경험적 과정이 학습자의 능력이나 상황에 걸맞게 제공되어 지식의 구성과 재구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과내용에 대한 구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에 대한 자율과 통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 학습활동과 교수활동의 요소가 공동의 수업상황에서 어떻게 적응과 조절이 이루어지는 가를 판단하고 동시에 그러한 상호작용이 전체적인 면에서 학생의 경험의 성장에 어떤 질적 변화를 초래하는가 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9].

그러나 기존의 강의중심의 교수법을 탈피하여 새로운 교육 접근 방법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학습촉진자로서 혹은 학습환경의 조성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10]. 특히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 학습활동에의 참여가 독립적인 관계이며, 이미 기존의 객관주의적 패러다임에 익숙해 있으므로 학습자에게 책임과 자율을 부여하고 학습자도적 학습을 강조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며, 새로운 방법과 패러다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에게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1][16].

실제로 Weimer(2013, pp. 70-84)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촉진자로서 교사들이 가르칠 때 해야 하는 학습촉진 활동의 원리들을 제시하면서, 교사들이 학습자 중심교육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실에서 촉진자로서의 역할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6]. 실제 대학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방법을 실천하는데 있어 대학교수들은 수업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 수업을 주도하는 교수자들의 경우 학습자 중심 교수방법에 대한 경험이나 모델이 없어 다양한 시도는 하나 매우 미숙하여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고 난 후 대학교수들은 강의평가 점수가 낮아졌음을 토로하며, 이러한 문제점은 학습자 중심 교육이 대학 현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Murphrey와 Dooley(2000)는 혁신의 이용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장애요소보다 사람들이 혁신에 어떻게 반응하고 지각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들에서 학습자 중심 교수법의 실천에 있어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철학적 합의, 수업 적용의 어려움, 수업의 구조화와 다양한 평가방법 수행의 어려움, 학습자 만족도 및 평가에 대한 부담 등의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과 교수방법의 변화는 결국 교수자들의 학습에 대한 가치와 태도 및 행동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17].

이렇듯 새로운 교수방법이나 프로그램이 대학의 교육현장에 적용되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 새로운 교육철학이나 방법이 소개된다 하더라도 모든 교수자가 이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도 아니며, 교수자 개개인에 따라 실행하는 수준과 행태가 상이하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교수자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 교육환경에서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채택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할 때도 교수학습을 이끄는 교수자들의 관심과 신념이 새로운 교육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다른 개인 차원의 요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17].

대학에서의 학습자 중심교육은 대학의 교수자 스스로가 교육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관, 지식구성과 전달 방법에 대한 변화 노력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교육실천 행위로서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의 구성과 학습과 학습자에 대한 정의부터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ung-Mi Park and Mi-Ja Sim, Analysis of Teaching Behavior Based on the Learner-Centered Teaching Competency, *Jour. Fish. Mar. Sci. Edu.* (2011), 23(3), pp. 374~387.
- [2] McCombs, B. L., and Whisler, J. S., *The learner centered classroom and school*. San Francisco: Jossey-Bass (1997)
- [3] Young-Ju Ham, A Critical Review of Learne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012), 33, pp. 61-85.
- [4] Bloom, B. S. (1976).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Y. McGraw hill Book Co.
- [5] Kwang-Woo Lee, Soo-Dong Kim, A Study on the Condition of Experiential Learning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Opera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Methodology Studies.* (2004), Vol.16 No.1, pp. 134-161.
- [6] In-Sil Chang, The Approach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from Educational Psychology and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8) 22(4), pp. 837-857.
- [7] Jae-won Kang, Learner-Centered Education Based on Constructivist Theory, *Proceedings of the 2017 spring Congress of Study on The Association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2017) May.
- [8] Dewey J. (1933). *How We Think. The Later Works.* Vol. 8. 1986.
- [9] Moo-Gil Kim, A Critical Examination on the Conditions of Good Instruction: Focused on J. Dewey's Concept of Growth,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2011) Vol. 33 No. 3. pp. 25~47

- [10] Nak-Won Kwon, A gradual practice of learner-centered education, Korean Assos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02) 2(1), 1-20
- [11] In-Ae Kang & Hyun-Jae Ju, Re-conceptualization of the Learner-Centered Education: The Status Quo of the In-Service Teachers, Korean Assos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09) Vol.9 No.2, pp. 1-34
- [12] Kyoung-Hye Seo & Shin-Young Yoo, The Good Instructional Practice from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Perspectiv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04) Vol.42 No.4, pp.285-315.
- [13] Eun-joo Oh, An Investigation of Teaching Competencies for the Student-centered Instruction,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2009), 5(2), pp. 107-134.
- [14] Uhlenbeck, A. M., Vellop, N., & Beigaard, D., Requirements for an assessment procedure for beginning teachers: implications from recent theories on teaching and assessment, Teachers College Record (2002), 104(2), pp. 242-272.
- [15] Rosenshine, B., & Furst, N. (1973). The use of direct observation to study teaching. In R. M. W. Travers(Ed.), Secon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122-183). Chicago: Rand McNally.
- [16] Weimer, M. (2013), Learner-centered teaching: Five key changes to practice. John Wiley & Sons, Inc.
- [17] Jong-ho Shin, Analyzing the Level of Concerns about Learner-Centered Pedagogical Method of University Faculty,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2014), 10(1), pp.109-136.